

자료명	2025년 3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엠바고	6월 30일(월)자 조간(통신, 인터넷 등은 6/29(일) 12:00부터)
문의처	경제정책팀 김현수 팀장(010-3751-8953, 02-6050-3442), 하서영 연구원(3447)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BSI), 수출회복세에도 관세 영향으로 상승폭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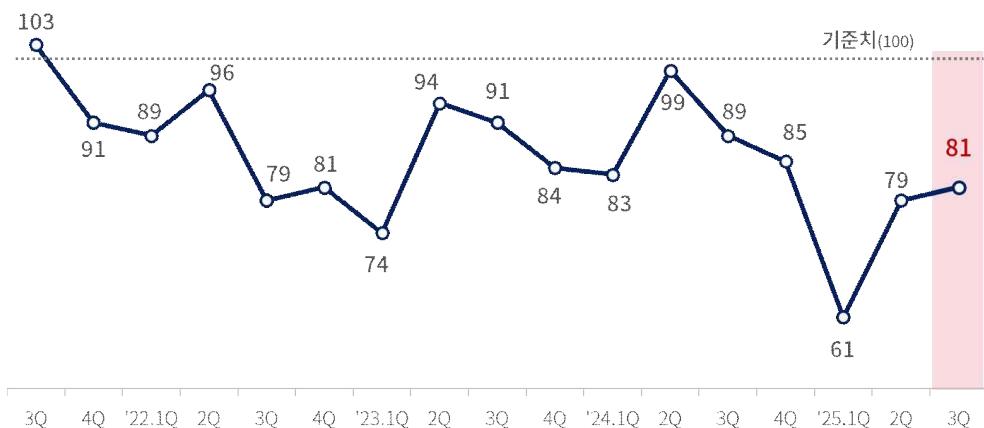
- 3분기 BSI '81', 전분기대비 2p 상승에도 16분기 연속 부정적.. 수출(87)보다 내수(79) 더욱 부진
- 반도체(109)·제약(109)·화장품(113) 개선 vs 철강(67)·자동차(76) 부진.. 관세부담, 수출회복세 따라 엇갈려
- 관광수요, 소비회복 기대감에 제주, 강원 '상승' vs. 철강·車·석유화학 부진에 대경권, 동남권 '하락'
- 상의 “통상 불확실성 완화, 규제개선, 내수부양책 등 정부·국회가 뒷받침해 경제회복 모멘텀 확보해야”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와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에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美 관세 압박, 중동불안, 내수부진의 삼중고에 3분기 체감경기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79)대비 2p 상승한 ‘81’로 집계되면서 16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밟돌았다. 부문별로는 수출(87), 내수(79) 모두 부진한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기업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화장품 등 일부 산업의 수출 회복세에도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전망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89)에 비해 중견기업(77)과 중소기업(81)의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BSI는 지수가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그림1> 대한상의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추이



반도체(109)·제약(109)·화장품(113) 개선 vs 철강(67)·자동차(76) 부진.. 관세부담, 수출회복세 따라 엇갈려

관세 부담과 수출 실적에 따라 업종별 체감경기 전망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예외품목에 해당하는 반도체(109), 제약(109) 업종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으며, 특히 반도체는 전분기보다 22p 상승하며 1년 만에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는 AI산업 확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체감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113) 업종의 경우에는 관세영향에도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이어가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25년 1~5월 화장품 수출액증감률: 對유럽 40.7%, 對중동 65.6%

미국 관세 적용대상인 철강, 자동차 업종은 지수가 기준치를 크게 밀돌았다. 철강(67) 업종은 대미수출 감소와 함께 우회수출로 중국·일본산 철강재의 국내유입이 늘어나면서 지수가 70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자동차(76) 업종 또한 관세 부담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25년 5월 對美수출액증감률: 철강 -16.3%, 자동차 -27.1%, 자동차부품 -5.8%

한편, 정유·석화 업종(72)은 산업의 구조적 침체상황에서 유가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전망이 크게 악화됐다. 비금속광물 업종(51)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2> 2025년 3분기 주요 업종별 BSI 전망치



<표1> 업종별 수출실적

업종	'25.1~5월 누적 증감률	5월 증감률
반도체	+11.4	+21.2
화장품	+13.5	+9.3
의약품	+17.0	+14.1
선박	+12.1	+4.3
자동차	-2.5	-4.4
철강	-5.4	-12.4
석유화학	-10.8	-20.8

※관세청, 전년동기비

관광수요, 소비회복 기대감에 제주, 강원 '상승' vs. 철강·車·석유화학 부진에 대경권, 동남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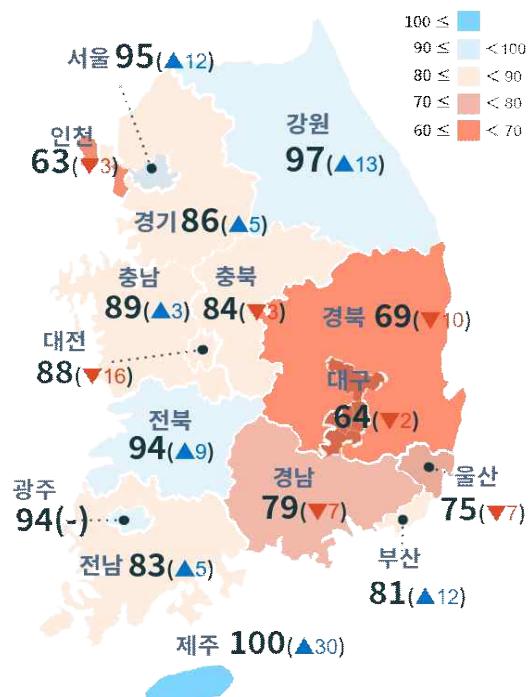
지역별 체감경기 전망에도 관세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100)지역은 지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식음료 업황이 개선되며 지수가 전국 중 가장 높

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원(97) 지역도 여름철 관광수요와 소비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 식음료 업황 개선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지수가 선방했다. *소비자심리지수 : 4월(93.8) → 5월(101.8) → 6월(108.7)

반면 인천(63)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계장비 업종 부진과 자동차·부품 관세 영향으로 부정적 전망이 강했고, 대구(64)·경북(69) 지역의 경우 철강업계 부진과 석유산업 침체로 지수가 60대에 머물렀다. 경남(79), 울산(75) 지역은 철강,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담과 석유화학 업황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부정적 전망이 강했다. 전남(83) 지역도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침체되면서 호남권 중 지수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지역별 BSI의 경우,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제외하고 집계함에 따라 각 지역상의 BSI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3> 2025년 3분기 지역별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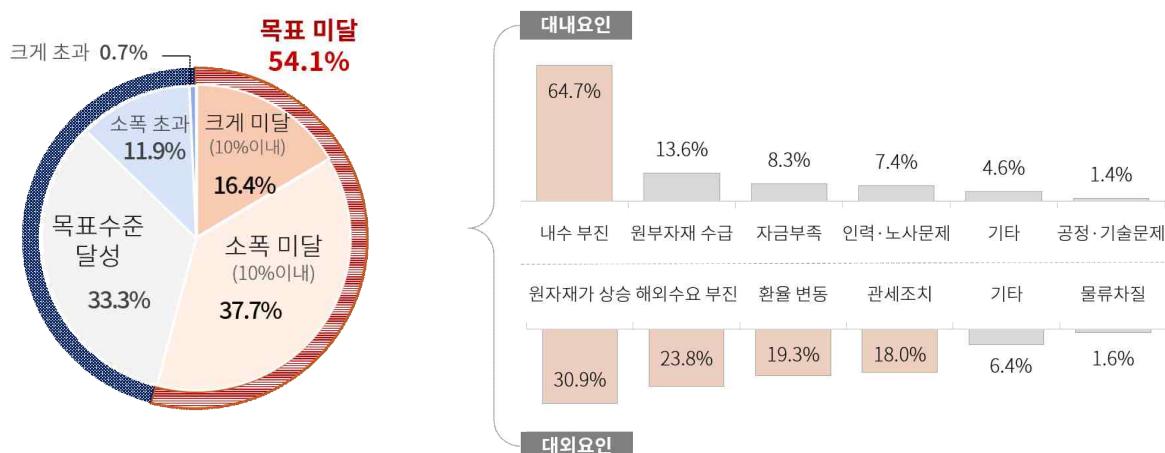


※ 세종은 표본수 부족으로 충남에 포함하여 산출
※ 괄호는 전분기 대비 증감

기업 54% 상반기 매출 ‘목표 미달’.. 원인은 ‘국내외 수요부진’, ‘원자재가 상승’, ‘환율’, ‘관세’ 영향

올해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상반기 매출실적을 점검한 결과, 제조기업 54.1%가 매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응답했다. 매출이 목표대비 10% 이상 미달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16.4%이고, 10% 이내 소폭 미달에 응답한 기업은 37.7%에 달해 기업 절반 이상이 목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표치 달성’에 응답한 기업은 33.3%를 차지했다. <소폭 초과달성 11.9%, 크게 초과 달성 0.7%>

<그림4> 상반기 매출실적 목표치 달성여부 및 대내외 주요 리스크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친 주요 리스크로 대내요인 중에서는 ‘내수 부진’(64.7%)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반면, 대외 요인으로는 ‘원자재가 상승’(30.9%)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수요 부진’(23.8%), ‘환율 변동’(19.3%), ‘관세조치’(18.0%) 순으로 답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됐으나, 관세부담으로 대미수출 감소가 현실화되는 등 기업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이 내수심리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불확실성 완화, 규제·애로 개선과 함께 고효율 신제품 및 노후설비 교체 지원, 투자 촉진 인센티브 등 과감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병행하여 민생경제와 기업심리 회복을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2025. 5. 30(금) ~ 2025. 6. 13(금)

• 응답 기업 :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

• BSI지수 산출방식

$$\left[\frac{\text{‘호전 예상’기업수} - \text{‘악화 예상’기업수}}{\text{응답기업수}} \right] \times 100 + 100$$